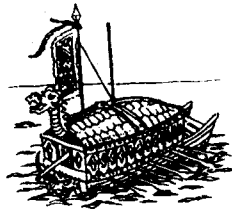


충무공의 거북선을 어항인이 찾아보자



韓 相 復 〈國立水產振興院 海洋科長·理博〉

신화적인 거북선

지금으로부터 400여년전 충무공 이순신이 만들어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끄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한 거북선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면서도 그 거북선에 대하여 자세히 아는 사람은 아직까지 한 사람도 없다. 그렇기에 충무공의 거북선은 가히 신화적이고, 따라서 그 실체를 밝혀 보려는 노력이 제법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도 당연하다.

거북선은 글자 그대로 거북처럼 생긴 배이다. 물 위에

떠 있을 때 거북이 모양처럼 보이니 주로 갑판부가 거북등처럼 생겼다고 생각해도 된다. 거북선이 최초로 문헌에 나타나는 것은 조선 태종실록으로 태종 13년(1413년) 왕이 임진강을 건너면서 거북선과 왜선이 수전연습하는 것을 구경했다는 기록이 있다. 가깝게는 고종 19년(1882년) 이현영(李櫛永, 1837~1910)이 음력 11월 9일 통영 해변에서 거북선을 보았다는 기록도 있다. 그러나 신화적인 거북선은 580년전 태종때의 거북선도 아니고, 110년전인 고종때의 거북선은 더더군다나

아니다. 오직 400년전 이순신의 거북선일 뿐 이다.

임진왜란때 혁혁한 전공을 세운 신화적인 거북선은 오직 3척 밖에 없다는 것이 최근까지의 연구결과 알려지고 있다. 충무공이 임진란이 일어나던 해인 선조 25년(1592년) 전라좌수영 선소(船所)에서 만든 「연귀선」과, 현재의 전남 여천군 돌산읍 군내리에 있었던 방답진 선소에서 만든 「방답귀선」 및 여천시 시전리 선소에서 만든 「순천귀선」이 알려져 있다.

이들 3척의 거북선은 충무공이 전라좌수사로 있을 때

장차 있을지도 모르는 왜구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 특별히 제작한 것으로 충무공의 막료인 나대용(羅大用)의 활약이 컸다.

거북선의 형태

충무공은 그가 직접 지휘해서 만든 거북선의 형태에 대하여 당포해전후 올린 보고에 간단히 언급하고 있을뿐인데 선수에 용두(龍頭)를 붙여 그 속에 현자포를 설치하고 입으로 대포를 쏘고, 등에는 쇠꼬챙이를 꽂았으며, 안에서는 밖을 내다 볼 수 있으나 밖에서는 안을 들여다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충무공의 조카이면서 충무공과 함께 종군했던 이분(李芬)이 기록한 이순신행록(李舜臣行錄)에는 거북선의 크기가 판옥선과 같은데 그 위에는 판자로 덮고, 판자위에 십자형세로(十字型細路)를 만들어 사람이 다닐 수 있게만 하고 전부 칼송곳을 꽂아 사방에 발 붙일 곳이 없게 만들었다고 적고 있다. 선수에는 용머리를 만들어 붙였는데 그 입이 포구멍이 되고, 선미는 거북꼬리처럼 되었는데 그 밑에도 포구멍 있으며, 좌우현에도 각기 6개의 구멍이 있다

고 했으며 배 전체 모양이 거북과 같아서 귀선(龜船)이라고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것들을 종합해 보면 충무공의 거북선은 당시 대표적인 전선(戰船)이었던 판옥선에다 그 위에 거북등 모양으로 판자를 덮고, 판자에는 쇠칼송곳을 꽂아서 왜군이 배에 뛰어내릴 수 없도록 했으며 선수에는 용두를 세워 용구(龍口)로 현자포를 쏘았다. 포구가 전체적으로 14개이니 14문의 포를 거치했다.

좌우현에 각기 6개의 포구

이유이다.

따라서 충무공의 거북선은 전통적인 판옥선을 개량하여 전시에 돌격 선봉선으로 이용되도록 한 것으로 철갑선이나 첩선이 아니며 잠수함도 아니다. 단순한 목선(木船)인 판옥선에 거북등 모양의 판자 덮개를 씌우고 그 위에 쇠칼송곳을 꽂아 놓았으며 선수에 용두를 세운 것이 하나의 특징이다. 거북선 길이는 약 20m쯤이고 탑승인원은 100여명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1〉 충무공의 거북선 모체인 판옥선을 유추할 수 있는 1711년의 사건선

가 있는 것으로 미루어 노도 각기 6개씩 있었을 것이며 노는 선실 안에서 젓는 것이 아니고 갑판 위에서 저었다. 갑판 위에는 마치 거북등처럼 판자로 덮였으나 배의 높이가 낮아 왜군이 뛰어내리지 못하도록 조처를 취한 것이 판자 위에 쇠칼송곳을 꽂아 놓은

어쩌면 〈그림 1〉에 보이는 전형적인 판옥선에 거북등 모양의 덮개를 씌우고 선수에 용두를 붙인 형태가 충무공의 거북선에 가까울 수 있다. 이 배는 1711년 조태억 일행이 타고 간 사건선으로 일본 화공이 그린 것이지만 옛날의 판옥선 모습을 가장 사실적

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디 있을까? ───────────

충무공의 거북선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어느 누구도 확실히 알 수 없다는 것이 정답일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우선 400년이 지난 현재에 그 형체가 남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

남아 있다해도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다. 단지 있다면 바다 밑 빨 속에 있거나 옛날의 조선소 주변의 빨이나 땅속에 부분적이거나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을 뿐이다.

400년전의 거북선이 완벽한 형태로 남아 있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 거북선이 완전하게 빨 속에 파묻히면 기적적으로 있을 수 있기도 하지만 침몰선에서 이런 기적은 일어날 수 없다.

빨이 아닌 바닷물 속에 남아 있을 가능성도 전혀 없다. 일반적으로 목선을 바다에 침몰시키면 3년 이내에 용골을 제외하고 그 형태가 없어져 버린다. 이것은 목선을 인공어초로 활용하면서 조사해 본 결과에서 얻은 결론이다. 하물며 400년이 지난 목선이 옛 그대로 물속에 있으리라는 생각은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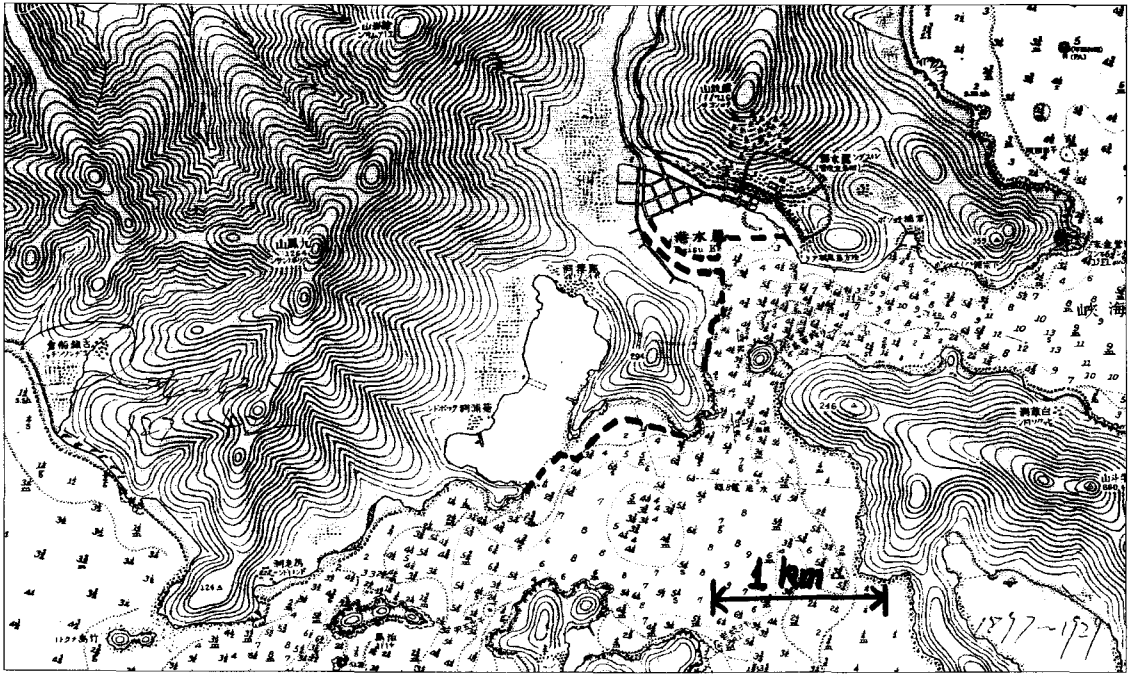
편린이나마 빨 속에 묻혀 있을 가능성은 조금 있다. 특징이 되는 것들, 예를 들면 용두나 쇠칼송곳등이 꽃혀 있는 판자의 일부가 400년전의 것이라고 판정되면 대단한 성과이고 그 주변에서 화포가 나오면 더욱 의미가 있다. 그러나 왜란전적지에 다년간 유물탐사 결과는 아직까지 뚜렷한 가지적인 성과가 없다. 어쩌면 이 사실이 당연한 것이기도 하다. 이제까지는 탐사 결과가 제시해 주는 중요한 지표는 충무공의 거북선 유물 편린이, 그것들이 만들어진 선소 주변 갯펄속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충무공이 친히 만든 영귀선의 선소였던 여수와, 방답선의 선소였던 돌산읍 군내, 그리고 순천귀선의 선소였던 여천시 선소부락은 모두 가막만에 연해 있어서 가막만 주변은 400년전 거북선의 신화를 간직하고 있음직한 가능성이 제일 많은 곳이다. 선소부락은 순천부 선소였고, 여수는 전라좌수영이 있던 곳이니 가막만 주변의 옛날 선소 어디엔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이 있음직하다.

어항인이 찾아보자 ───────────

옛날의 선소는 현재의 어항이다. 실제적으로 옛날에도 어항이었다. 옛날의 수군 특히 400년전의 수군은 바로 어항에 살고 있던 어부였다. 수군 진지도 평시에는 어선이 정박해서 어항이나 다름 없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옛날에는 어항이라던가 군항이라는 구별이 없이 사용되었다. 오늘날 어항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어항인이다. 옛날의 어항을 찾아보고 충무공의 해전 유물을 찾아보기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도, 바로 어항지를 받아보는 어항인들이다. 그래서 어항관계자들이 충무공의 거북선을 찾아보는데 발벗고 나서야 할 당위성이 있다.

찾아보는데 큰 돈을 들일 필요도 없다. 우선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며 틈나는대로 문헌을 모으고, 전해내려오는 얘기들을 종합하여,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려가면서 정리해서 하나 하나 조사자료를 축적해야 한다. 그러면서 옛날 거북선을 만들었던 선소에 대단위 건물공사가 있어 매립지를 다시 파헤칠 경우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묻혀있던 유물이 있으면 주의깊게 조사



〈그림 2〉 1929년의 여수항과 현재의 매립지

하면 된다.

큰 건물을 지을 경우 기초토목공사로 땅을 파게 되는 것은 하나의 과정이니 일부러 돈들여가면서 고생할 필요도 없다.

옛날의 해안선과 현재의 해안선이 꼭 같은 것도 아니다. 특히 매립공사로 도시를 넓히거나 땅을 넓힌 곳에서는 판이하게 다를 경우가 많다. 이럴때 옛날의 해도 또는 지도가 가장 중요한 자료로 이용된다. 과학적으로 측량된 것이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것도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 이

제부터 관심을 기울일 가치가 있는 곳을 찾아보기로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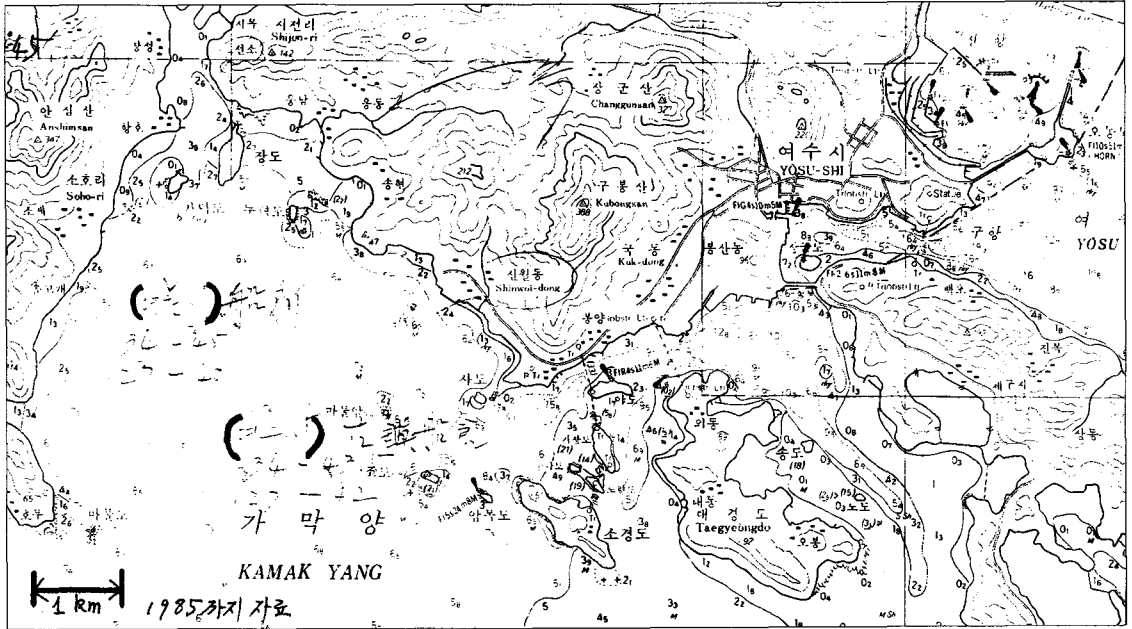
전라좌수영 선소

여수시에 있는 진남관 남쪽의 평평한 시가지는 옛날에 전라좌수영 병선들이 정박해 있던 곳이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좌수영 선소가 있었다. 400년전의 좌수영 선소는 여수 시가지 확장으로 매립되어 버렸다. 〈그림 2〉는 1897년 측량된 해도를 기본으로 하여 1929년까지의 변화된 자료를 정리한 여수항에다가 현재 매

립된 부분을 굵은 점선으로 표시한 것이다. 이 그림에서 우리는 1929년 당시의 여수항 모습을 뚜렷이 볼 수 있고, 어디가 매립지인지를 알게된다.

진남관 남쪽의 매립지에 대규모 토목공사가 있을 경우 우리는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동어항 배후의 평평한 시가지도 예전엔 갯가였으므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충무공이 영귀선을 건조하던 곳이 정확하게 어느 위치였던가를 10m이내의 확실성



〈그림 3〉 옛날 순천선소의 위치 및 1985년의 여수

을 가지고 알아낼 재주는 없다.

믿을만한 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하기에 여수시 일원의 매립지 토목공사에서는 여수시민 모두 충무공의 거북선 찾아내기에 참여한다는 자발적 의식으로 꾸준히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고진선창(古鎭船倉)

지금의 여수시 신월동이 예전엔 고진선창이었다. 위치가 북위 34도 43.5분, 동경 127도 42분에 해당한다. 〈그림 2〉의 왼쪽에 나와있는데 이 부분은 1897년 측량될 당시의

모습이 1929년에도 수정되지 않고 그대로 이용되었다.

여기서는 개펄속이나 땅속에 거북선 조각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용두가 나타날 경우도 있겠고 쇠창살이 나올 경우도 있음직하다. 시가지 정리 또는 수도공사를 하면서 땅을 팔 때 무심히 지나치지 말고 눈여겨 살필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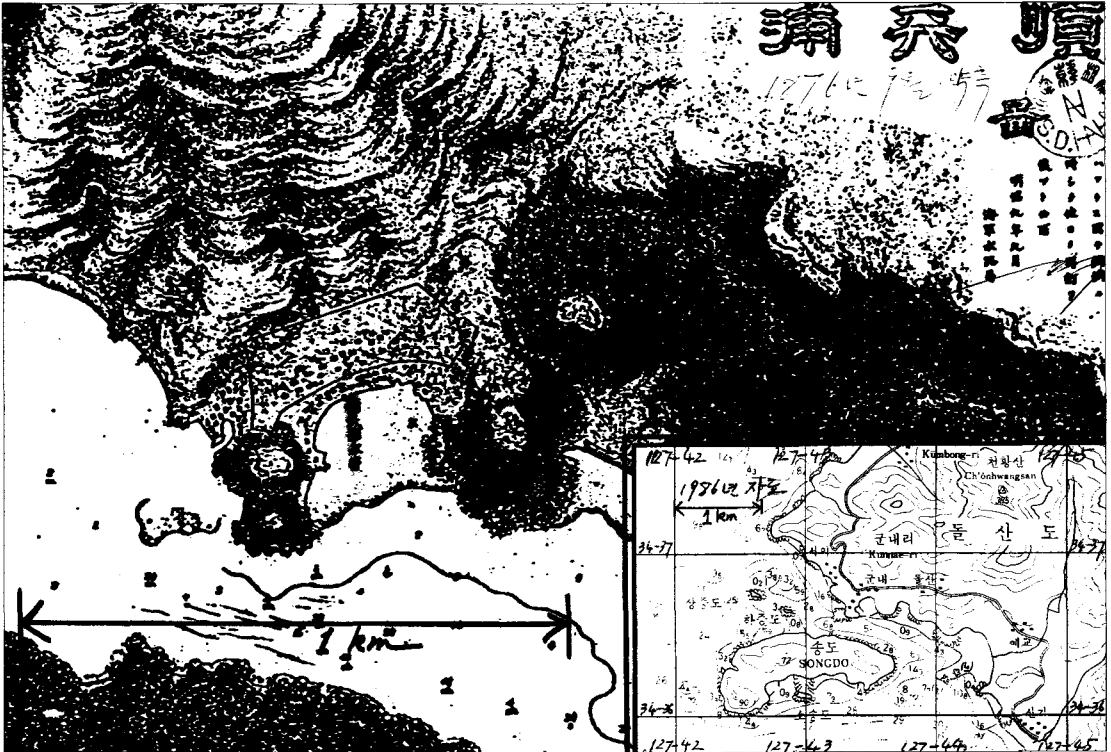
오래도록 이 지방에 살아왔던 분들의 얘기를 종합하고 향토사학자들의 연구결과를 크게 활용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순천 선소

지금은 여천시로 편입되었지만 얼마전까지만해도 여천군 쌍봉면 시전리 선소부락이 예전엔 순천부 선소였고 여기서 만들어진 400년전의 거북선을 순천귀선이라 부른다. 선소부락의 위치는 북위 34도 45분, 동경 127도 40분으로 1899년 측량된 해도의 모습과 현재의 모양이 크게 변화되지 않았다.

순천 선소의 개펄이나 옛날 배를 만들던 곳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림 3〉은 1985년까지의 자료를 가지고 만든 해도로 선소부락이 옛날 그대로 나와 있다. 1929년의 해도에 나왔던



〈그림 4〉 방담진의 1876년 모습과 1986년 모습(군내항)

고진선창은 여수시 신월동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전라좌수영의 본진은 많이 매립되어 여수 구항으로 나오고 있다.

방담진 선소

여수 남쪽에 있는 돌산도의 군내항은 예전에 방담진 선소가 있었고 임진란때 활약한 방담귀선이 여기서 만들어졌다.

1876년 9월 일본해군이 이곳을 약측한 결과가 〈그림 4〉에 나오는데 해도 명칭을 「순천포(順天浦)」로 적고 있다.

순천부에서 관리하는 포구라는 뜻일 수도 있지만 이곳이 분명히 방담진 자리다. 〈그림 4〉의 우하단에 1986년까지의 자료를 가지고 수로국에서 발행한 해도를 삽입해 놓아 100여년전과 현재의 군내항 모습을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군내항의 위치는 북위 34도 36.7분, 동경 127도 43.5분이며, 오늘날 방파제 시설은 되어 있지만 항내는 예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았음을 알게 된다.

옛날의 방담진 선소 위치도

비교적 쉽게 옛기록을 고증하여 더듬어 볼 수 있는 곳이다. 이곳은 육지나 바닷속을 약간 범위를 넓혀 조사해 봄직한 장소이다.

전라좌수영 휘하의 선소는 광양선소 낙안선소, 홍양선소, 보성선소 등도 있으므로 이들에 대해서도 조금은 신경을 써 볼 필요도 있다.

충무공의 거북선을 우리 어항인이 자발적으로 찾아 나서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끔 노력하자. ㉔